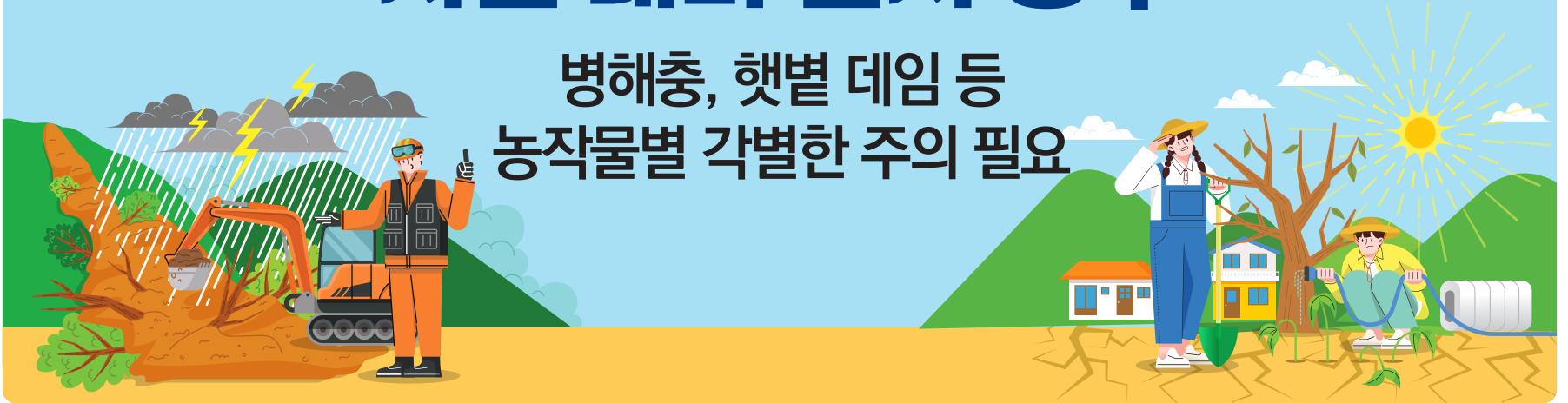


강화군,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 대비 철저 당부

병해충, 햇볕 데임 등
농작물별 각별한 주의 필요



시설하우스 차광막



노지포장 침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장마 이후 한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 일소과(햇볕 데임), 엽소현상(갈변현상) 등의 원예작물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서는 올여름 엘니뇨 발생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기습적인 폭우와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군은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 사전 농작물의 피해 예방 및 농업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지 고추의 경우 포장 주변의 배수로 정비와 지주대를 최대한 보강하여 강우로 인해서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비가 오기 전과 후에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해충 초기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온 상승에 따른 뿌리 활력 저하로 비료의 흡수가 줄어들면서 생육 부진, 낙엽, 낙과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농작물별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노지 작물의 경우 폭염이 지속되면 관수를 통해 토양수분을 유지시켜주고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엽면시비로 양분결핍 등 생리장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고온성 해충인 총채벌레, 진딧물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반드시 적용약제를 살포해 방제해야 한다.

시설 하우스는 내부에 공기 순환팬을 설치하고, 환기창을 최대한 열어두어 강제 환기를 시키고 외부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차광도포제를 뿌려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년 6월 말부터 장마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상습 침수지 노지 밭작물은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도 보수·보강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어김없이 다가올 장마와 폭염 사전대비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물별 세심한 환경 관리가 필요하며, 농업인은 고온기 지나친 농작업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 최벽하 기자

제73주년 6·25전쟁 기념식 개최 6·25 참전 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제73주년 6·25전쟁 기념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3일 명진컨벤션웨딩홀에서 '제73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날 기념식에는 이태산 부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박용철 인천시의회 의원 등을 비롯한 6·25참전용사 및 보훈단체 회원, 기관·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국민의례, 6·25전쟁 유공자 표창, 개회사, 기념사, 6·25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태산 부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가 오늘을 기념하는 것은 민족 분담의 아픔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루는데 공헌한 수많은 유공자분들을 기리기 위함"이라며, "군에서는 해누리 공원과 함상공원 조성,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수당 지원 등 보훈 단체 활성화와 국가유공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1, 2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재개 23년 민방위 교육, 4년만에 대면교육 실시



23년 민방위 교육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0일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 2년차 민방위 대원의 민방위 교육은 그동안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었지만 올해부터 대면 집합교육으로 시행된다.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게 된다.

올해 민방위 교육대상은 만 20세(2003년생)부터 만 40세(1983년생)

까지로 집합교육 대상은 1~2년 차 민방위 대원 및 민방위대장이다.

군은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전시·사변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응급처치 요령 ▲전기안전 분야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민방위 대원 전자출결 및 모바일 수료증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출결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교육을 받지 못한 대원은 민방위 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조회 후 가까운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거나 하반기 실시 예정인 보충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민방위 대원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된 후 4년 만에 정상화된 만큼 국가 안보위기와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직원 3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대한 소속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 주체로서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이명호 공인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최초로 실행 선고된 두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소개하며 직무 관련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군은 소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주기적인 반기 1회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이은 산업재해와 다중이용시설 사고 발생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관련 업무 역량을 개선하고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내달 1일, 신정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정식개장 이달 24일~25일 양일간 임시운영 / '갑룡공원 물놀이장'도 내달 1일 개장



신정체육공원 물놀이장



신정체육공원 물놀이장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내달 1일부터 신정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물놀이장은 정식 개장에 앞서 이달 24일~25일 양일간 무료로 임시 개장 후 8월 20일까지 44일간(매주 월요일 휴장)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이용요금은 학부모·어린이 구분 없이 1인당 5,000원이다. 강화군민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시설 내에는 조합놀이대, 워터터널, 워터드롭, 바닥분수, 야외풀장을 비롯해 탈의실(몽골형), 야외샤워장, 그늘막, 벤치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또한, 갑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도 내달 1일 개장한다. 규모는 작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집 앞에서 편리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일상 회복의 시작과 이른 더위로 예년보다 이용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올여름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장을 방문하여 안전하고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물놀이장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정체육공원 물놀이시설은 강화군체육회(☎032-933-9696), 강화군 행정과(☎032-930-3226) ▲갑룡공원 물놀이시설은 군 산림공원과(☎032-930-3468)로 문의하면 된다. 📌

다양한 놀이시설로 재탄생, 갑룡공원 2단계' 개장 갑룡공원 약 18,605㎡ 확대 / 운동, 산책, 물놀이, 놀이터 갖춘 도심 속 힐링공간



갑룡공원 놀이터



갑룡공원 물놀이장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탄생했다. 갑룡공원이 2020년 개장 이후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5일 개장했다.

어린이 공원인 '갑룡공원'은 기존 11,554㎡ 규모에서 사업비 58억 원을 추가 투입해 인접지 7,051㎡에 어린이 전용놀이 공간을 갖춰 18,605㎡로 확대됐다.

확대된 어린이 전용놀이 공간에는 그물놀이대, 모래놀이대 등 다양한 놀이시설로 구성해 시설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해소했다.

특히, 오감을 자극하는 모래놀이대를 설치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형 놀이시설 도토리 동산은 네트 오르기, 건너기, 미끄럼틀 놀이 등을 다이내믹하게 즐길

수 있어, 어린이들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갑룡공원은 체육시설, 산책로, 물놀이 및 다양한 놀이시설을 모두 갖춘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완성됐다.

강화군은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 속 SOC 사업을 통해 장기 미집행공원인 남산·관청·북산공원 이번 갑룡공원 2단계까지 개장 하면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대거 탄생했다.

군 관계자는 “어른들에게는 건강과 휴식의 공간으로,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기자

강화군의회, 개원 1주년 '처음 마음 그대로 강화군민과 함께'



제9대 강화군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지난 27일 강화군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및 강화군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난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결과보고

안건을 채택한 3차 본회의를 끝으로 2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례회 폐회 후 제9대 강화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처음 마음 그대로 강화군민과 함께'를 다짐하며 조출한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태산 부군수는 "앞으로의 강화군의회 의정 활동을 응원하며, 앞서 그랬던 것처럼 강화군과 강화군의회가 함께 군민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승한 의장은 "제9대 개원을 한 지 금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처음에는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아 의정활동 등에 걱정이 있었지만, 무색하게도 함께 지낸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학구열로 함께하며 지난 1년을 보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민생과 직결된 의정활동에 전념해 군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제9대 강화군의회는 사랑방간담회 등의 활성화로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대안 개발, 의원별 담당 정책지원관 지정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

'강화군 남산마을 도시재생 사업' 3년 연속 수상 인천시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 「대상」



강화남산마을 도시재생 경진대회 대상 수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3일 진행된 '2023년 인천시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강화남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상배)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화남산마을은 2021년부터 참가해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인천시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는 도시재생 성과와 현황에 대한 주민참여 사례를 공유, 확산하는 교류의 장으로 우수 사례를 시상하고 주민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는 남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운영능력 ▲지속 가능한 수익창출모델실현 ▲주민일자리창출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높이 평가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2022년 3월에 강화군 최초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그동안 안정된



강화남산마을 도시재생 경진대회 대상 수상

운영능력과 꾸준한 매출상승 등으로 좋은 사업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우수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현재는 강화군 행복센터에서 마을카페와 반찬, 도시락, 점심식사 등의 판매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일자리창출과 소득에 기여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심각해 노년층 일자리와 소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남산마을 협동조합은 노인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 - 최백하기자

‘2023년 정원 콘테스트’ 5곳 선정!



정원콘테스트 입상작_행복을 주는 정원



정원콘테스트 입상작_가든 라파미리아



정원콘테스트 입상작_다루지



정원콘테스트 입상작_예쁜마당



정원콘테스트 입상작_푸르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3년 정원 콘테스트’ 우수 정원 5개소를 선정했다.

강화의 아름답고 우수한 정원을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2023년 정원 콘테스트’에는 주택, 카페, 펜션 등 지역 내 정원 16개소가 응모하여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군은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의 현장심사를 거쳐 우수 정원을 선정했다. 심사는 식물의 다양성 및 관리 상태, 정원의 조화성, 관광 자원화, 정원문화 확산성, 정원의 지속성 등을 종합해 이루어졌다.

선정된 5개 정원은 주택 3개소 ▲행복을 주는 정원(양도면) ▲가든 라파미리아(양도면) ▲푸르름(강화읍), 카페 2개소 ▲카페 다루지(길상면) ▲폴레폴레 카페의 예쁜마당(선원면)이다.

군은 선정된 5개소에 대해 ‘강화군 아름다운 정원’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정원 홍보와 민간정원 등록에 대한 기회 등을 제공하는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군민들의 정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정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강화의 아름다운 정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1심 1주치(主治) 병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국제성모병원 의료진, 주문도 의료봉사 실시



국제성모병원 의료진, 주문도 의료봉사 실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 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이 지난 16일 서도면 주문도에서 무료 진료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2월 27일 인천광역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 성모병원과 함께 ‘1심 1주치(主治) 병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20여 명이 참여해 주문도와 아차도 주민 100여 명을 진료했다.

강화군보건소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의료진이 자택으로 찾아가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진료 과목은 소화기내과, 재활의학과, 한의과 등으로 전문 의료진이 혈압과 혈당 측정 등의 기초검사, 영양수액 투여 및 재활 치료를 실시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단순 1회성 의료봉사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예방 교육 및 건강 상담 등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도 소외되지 않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병원과 무료진료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행복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강화 지역 학부모 교육간담회」 배준영 의원, 강화 초·중·고 학부모 교육간담회 개최



강화지역 학부모 교육간담회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9일(월), 강화군 행복센터에서 약 30여 명의 강화군 초·중·고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강화 지역 학부모 교육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배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운데 김성환 인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부 기초학력 진로교육과,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이 함께했으며, 강화 학부모연합네트워크에서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배준영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강화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날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우리 대한민국과 강화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의견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진로교육정책에 대한 설명과 김성환 인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강화군 교육정책설명으로 시작해, 박승한 강화군 의장의 강화군 교육 현안 소개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시간으로 이어졌다.

간담회는 △강화지역 학령인구 감소 문제 △기초학력, 문해력 개선 계획 △강화지역 교육여건 개선 문제 등 큰 틀에서의 강화 지역 교육 현안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피부에 와닿는 △방과후 수업 문제, △노후화된 시설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가 오갔으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학부모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만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강화 학부모연합네트워크 소속 한 학부모는 “강화 지역 방과 후 수업의 강사진이 부족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이 적다”고 밝히며, “그 와중에 몇 개 학교 수업에 집중되는 과밀학급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환 교육장은 “강화 지역 학교장선생님들, 학부모 모임과 함께 방과 후 수업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고, 배준영 의원 역시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히는 등 내실있는 답변과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배준영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학부모님들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을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라며, “간담회를 통해 전해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이 모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인천시, 강화군 모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며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화교육지원청, ‘동물과 함께 하는 삶’ 강화 이음교육과정



‘동물과 함께 하는 삶’ 강화 이음교육과정

강화 이음교육과정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평화 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활동으로는 관내 예술인인 조민영 작가를 모시고 ‘나만의 동물 그리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미술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파스텔을 재료로 동물을 표현함으로써 심미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작업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관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으며, 특히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장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강화이음교육과정의 학년을 확대하여 새로운 주제로 이음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이라며 공동 수업으로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교실 수업 제고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 체육지도사의 1:1 운동 코칭 강화군, 찾아가는 우리동네 PT 사업 시범운영



찾아가는 우리동네 PT 사업



찾아가는 우리동네 PT 사업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원거리의 헬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우리동네 PT'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13일부터 강화군모바일 건강채널을 통해 내가면 주민 5명을 모집해 주 2회(화·목요일) 찾아가는 우리동네 P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문 체육지도사가 직접 주민 자치센터를 방문해 체성분 검사 및 건강 설문 조사를 실시 후 개인에게 맞는 운동방법을 1:1로 지도하며, 비만 영양클리닉 및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과 연계해 참여자에게는 개별 운동처방 및 영양교육, 운동보조용품, 교육책자 등을 지급한다.

또한 프로그램 전·후 신체변화를 확인하고, 종료 후에도 바른 신체활동이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문 체육지도사가 직접 주민 자치센터를 방문해 1:1로 운동방법 등을 지도하며, 프로그램 참여 전·후 체성분 검사 및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한 참여자는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지도 잘 모르겠고,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해 다치거나 더 아플 때가 있다"며, "이렇게 전문가가 방문해서 운동하는 방법을 1:1 개인교습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자기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전적 투자를 감수하며 전문 트레이너에게 몸을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비싼 수업료와 시간적 제약으로 헬스장을 가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주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이번 내가면 참여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삼산면을 대상으로 두 번째 참여자를 모집한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PT'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삼산면 주민은 6월29일부터 7월5일 까지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체력단력실 (☎930-4075)로 상담 및 접수하면 된다. ▣

헬스케어 경로당 읍면 설명회 운영, 큰 '호응'으로 관심유도



헬스케어경로당 읍면설명회 날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16일 어르신 건강관리 플랫폼인 헬스케어 경로당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5월 2일 본격 운영을 시작한 헬스케어 경로당은 읍·면 경로당 37개소,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총 3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체온계, 혈압계, 혈당계, 체성분분석기를 설치하고 키오스크를 통해 건강측정 종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운영 시작과 동시에 서도면을 시작으로 6월 16일 강화읍 전자산 경로당 까지 37개소 헬스케어 경로당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경로당별 평균 2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IOT 헬스케어 기기 사용방법 및 기능에 대한 설명, 개인 휴대폰 사용자 앱 회원가입 및 다운로드 등을 진행했다.

또한, 건강측정, 스마트 TV를 활용한 맞춤형운동 등 실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따라해 보는 체험형 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설명회에 힘입어 현재까지 회원가입자 수 884명, 건강측정 및 맞춤형운동 등 이용 횟수 5,317회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회원가입과 건강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군은 지속적으로 건강측정 결과를 모니터링해 건강 취약자를 발굴하고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한편,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코칭센터에서 상담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헬스케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이용현황과 필요사항을 살펴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음식재현행사



6.25전쟁 음식 재현행사



6.25전쟁 음식 재현행사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회장 박봉식)는 20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전쟁 당시 음식재현 행사를 개최했다.

강화읍 수협 사거리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전쟁 당시 주식이었던 보리죽떡밥과 개떡, 썩버무리, 감자 등을 재현해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에게 당시의 기억을 되새겨 보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빈곤했던 당시 상황을 간접 체험하며, 호국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봉식 회장은 “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자 그날의 음식들을 나누고 뜻을 기리는 행사를 열게 됐다.”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뤄낸 것임을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식회를 통해 호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등사·온수리성당, ‘종교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족구대회



전등사와 성공회의 족구대회(사진제공 전등사)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주지 여암스님)와 대한성공회 온수리 성당(신부 주성식)이 6월 25일 오후 2시 전등사 남문 주차장에서 종교화합의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전등사와 대한성공회 온수리 성당의 족구대회는 종교화합과 소재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개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족구대회에서는 전등사 스님 대 성공회 강화군 신부님, 전등사 거사림회(중장년층 남성신도회) 대 온수리 성당 장년회, 전등사 여성신도회 대 온수리 성당 여성신도회가 경기를 벌였다.

이날 족구대회 개최사에서 전등사 주지 여암스님은 “불교의 자비와 성공회의 사랑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을 것”라며, “전등사 거사림회와 온수리성당 장년회의 족구대회는 강화도의 종교화합에 귀감이 될 만한 본보기”라며 “전등사는 앞으로도 종교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이웃종교와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온수리 성당 주성식 신부는 축사를 통해 “족구대회를 준비하신 전등사 주지 여암스님을 비롯한 전등사 스님과 신도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이웃종교 간 화합과 친선을 위해 온수리 성당과 전등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공회 온수리 성당은 콩나물을 키워서 판매한 금액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우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마을’에는 100여 명의 지적 장애인이 직업 재활을 받고 있다. 전등사 회주 학룡 장윤스님과 대한성공회 김성규 주교는 오래 전부터 강화도의 종교화합과 지역발전에 뜻을 같이해오고 있다.

- 최백하 기자

여름철 취약계층 긴급대책 마련, 재해구호기금 활용해 현금지원 인천시,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에 냉방비 70억 원 특별지원



인천광역시청 청사

차상위계층 가구인 전체 13만 1천여 저소득 가구에는 5만 원씩, 총 65억 5천만 원을 7월 중 추가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의 냉방비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경로당 1,577곳 포함) 1,820여 곳에 20만 원 ~ 100만 원까지 냉방비 4억 4천만 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해 시설 이용자들의 냉방비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사업의 신속성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름철 냉방비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디딤돌 안정소득 전 세대) 13만 1천여 가구와 시비 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1,820여 곳에 냉방비 70억 원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냉방비 특별지원은 폭염 등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대책을 검토하라는 유정복 시장의 특별 지시로 긴급히 마련됐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디딤돌 안정소득(인천형 기초생활수급),

유정복 시장은 “본격적인 무더위 다가오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지원하게 됐다”며 “짊통더위와 부담스러운 냉방 요금으로 이중고를 겪을 취약계층들이 조금이나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겨울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만 1천여 저소득 가구(차상위 포함)에 각 10만 원, 1,830여 개 사회복지시설(정부 난방비 특별지원 대상 제외)에 각 60만 원 ~ 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23일, 영흥도 해역 시작으로 4회 걸쳐 건강한 어린 주꾸미 방류 인천시, 수산자원 회복 위해 어린 주꾸미 45만 마리 방류



주꾸미 방류(사진제공 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 지역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어린 주꾸미 45만 마리를 6월 23일(금) 옹진군 영흥도 해역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강화군 주문도해역, 중구 영종도해역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주꾸미는 인천의 대표적인 수산물로 인천 기준 어업생산량이 2020

년 2만 6천 톤에서 2022년 1만여 톤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자원 회복중이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주꾸미는 지난 5월 성숙한 어미로부터 난을 부착시켜 약 60일간 실내에서 사육한 후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0.5cm 이상 크기의 우량한 주꾸미다.

시는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환경오염을 비롯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 및 어업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방류한 어린 주꾸미가 1년 후 약 80g 이상으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준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은 “앞으로도 꽃게, 참조기, 주꾸미, 갑오징어, 바지락, 참담치 등을 방류해 인천 앞바다 수산자원 증대를 도모하며, 새로운 신상품 및 양식 기술을 개발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지난 4월 강화군 황산도 해역에 어린 점농어 10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

기고

이경수

창왕과 영창대군, 유배 오다



영창대군 묘(경기도 안성시)

그 섬에 가고 싶다!

언제 갔던 게 마지막이었더라. 헤아려보니 십 년도 더 지났네요. 어디? 거제도! 거제도는 풍광이 참 아름답고 역사 유적도 다양합니다. 또 가보고 싶은데 아휴, 너무 멀어서 이제 엄두가 안 납니다.

조선시대, 전국의 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귀양 갔던 유배지가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제주도, 남해도, 진도, 흑산도 순이었어요. 강화는 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강화도와 교동도가 유배지로 널리 알려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양 왔던 사람들의 신분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강화에 유배된 사람들은 대개 왕족이거나 폐위된 왕이었습니다. 폐왕이나 왕족은 언제든지 역모에 휩쓸릴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면 도읍에서 가까운 섬, 강화가 가장 적합한 유배지였습니다.

조선 개국초 강화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392년(태조 1), 태조 이성계가 명합니다. “강화와 거제에 나누어 두게 하라” 될 나누어 두게 하라는 걸까요? 고려의 왕씨(王氏)들을 강화도와 거제도로 옮기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강화에 상당히 많은 왕씨 성 가진 이들이 끌려왔습니다. 집단 유배였던 셈입니다.



실재이 창왕 유허비(출처 동아일보)

《태조실록》에 따르면, 1394년(태조 3년)에 강화와 거제의 왕씨들을 거의 다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연려실기술》은 왕씨들을 배에 태워 바다에 나가서 배에 구멍을 뚫어 가라앉혀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용케 살아남은 왕씨들은 태조의 명령으로 성(姓)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씨들 상당수가 전씨(田氏), 옥씨(玉氏), 또 다른 전씨(全氏)로 성을 고쳤다고 전합니다.

태종조에 왕씨의 후예로 민간에 숨어 있는 자가 있다 하여 해당 관청에서 죽이기를 청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왕씨의 후예를 죽인 것은 태조의 본의가 아니다.” 하고, 바로 전교를 내려 왕씨의 후예로 남아 있는 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각각 생업에 종사하게 하라고 하였다. 《연려실기술》

그렇습니다. 태종 때 이르러서야 왕씨 사람들에 대한 칼부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왕씨 살해 사건 이후 강화로 귀양 왔던 대표적인 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폐위된 임금으로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습니다. 강화에서 귀양 살다가 임금 된 이는 철종입니다. 왕족은 안평대군, 임해군, 능창군, 영창대군 등등입니다.



교동 연산군유배지 조형물

고려시대에도 강화로 귀양 왔던 임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희종, 충정왕, 우왕, 창왕입니다. 강종과 고종은 강화에서 귀양 살다가 개성으로 가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조선 철종처럼이요. 그리고 보니 고려 고종은 몽골의 침략으로 강화로 천도할 때, 그때 강화에 처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강종과 함께 강화에서 유배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조선의 영창대군(1606~1614)과 고려의 창왕(1380~1389)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창대군과 창왕은 죄 없이 강화에 귀양 와서 어린 나이에 강화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창대군은 9살, 창왕은 10살에 살해당했습니다.

영창대군 묘가 경기도 안성시에 있습니다. 남한산성 쪽에 있었는데 1970년대에 안성으로 이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왕은 묘조차 없습니다. 어딘가로 시신을 모셔갔을 수도 있겠고 강화 땅 어딘가에 버려지듯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창왕이 인천 을왕리에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는 전설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닐 겁니다.

《고려사절요》에 “예문관대제학 유구를 강화로 보내어 창을 처형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원문을 확인해 봅시다. “藝文館大提學柳珣于江華, 誅昌” 誅(벨 주)! 아,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목을 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상 왕족은 몸이라도 온전하게 묻어주라고 사약을 내리는 법인데, 10살 꼬마 창왕은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영창대군은 어떻게 살해됐을까요? 방에 가두고 불을 잔뜩 때



희종왕릉 석릉



교동 죽산포

서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실록에 나오기는 하는데 정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실록에 각각 다른 내용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태워 죽였을 가능성은 33.3%인 셈입니다.

폐왕인 연산군과 광해군의 실록은 실록임에도 '실록'이라 하지 않고 '일기'라고 합니다. 《광해군일기》에 영창대군을 '굶겨 죽였다'는 기록과 함께 '태워 죽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실록》에는 음식에 짚물을 넣어 죽였다고 나옵니다. 독살했다는 얘지요. 굶겨서, 태워서, 독약 먹여서, 이 셋 중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왕과 영창대군은 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고려 창왕은 이성계 세력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폐위되고 살해되었습니다. 일국의 왕을 신하들이 폐위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겠죠. 창왕을 폐위한 명분은 '폐가입진'(廢假立眞,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움)입니다. 창왕은 왕씨가 아니고 신씨이다, 그러니 가짜 왕인 신씨를 폐위시키고 진짜 왕씨를 새 왕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왕을 내쫓고 공양왕을 세웁니다.

공민왕-우왕-창왕-공양왕, 고려 마지막 네 임금을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이고 우왕의 아들이 창왕입니다. 공민왕 당시 활약하던 인물이 신돈입니다. 신돈이 공민왕에게 한 여인을 바쳤는데,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우왕입니다.

이성계 세력은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우왕은 신씨가 되고 우왕의 아들 창왕도 신씨가 됩니다. 왕건이 세운 나라 고려에서 신씨는 임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왕이 진짜 누구의 아들인지 궁금합니다만, 알 수 없습니다.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왕권 안정을 위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임해군, 광해군, 영창대군. 모두 선조의 아들입니다. 임해군과 광해군은 그냥 '군'인데, 영창대군은 '대군'입니다. 왕비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왕의 적자는 '대군'이 되고 후궁이 낳은 서자는 '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광해군보다 영창대군이 왕위 계승권자로 더 확실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비극은 영창대군이 너무 늦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선조는 적자로 왕위를 잇게 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낳는 아들마다 서자였네요. 장남 임해군, 차남 광해군... 왕비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세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던 선조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할 수 없이 광해군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장남 임해군은 평판이 너무 나빠서 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1606년(선조 39)에 새 왕비 인목왕후(인목대비)가 드디어 적자 영창대군을 낳았습니다. 이때 선조 나이 55세, 인목왕후는 23세였습

니다. 세자 광해군은 32세였고요. 광해군이 '새엄마' 인목왕후보다 9살이나 많았습니다.

선조는 고민합니다. 세자를 바꿀까, 말까. 신하들도 세자 광해군과 영창대군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다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겨우 즉위합니다. 광해군은 자신보다 정통성에서 앞서는 형 임해군을 교동도로 유배 보내 죽였고 아우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보내 죽였습니다.

성안을 두루 다니면서 우리에게 합당한 집을 찾았는데 마지막 날 늦게서야 동문 안 최언상의 집을 얻고 군인들을 시켜... 담을 쌓고 울타리를 치게 해서 그날에 일을 끝마쳤습니다.《광해군일기》

영창대군을 강화성 동문안 최언상의 집에 가뒀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료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살채이'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군청 동쪽, 견자산 남쪽 마을을 살채이 또는 살챙이라고 합니다. 살채이는 살창리(殺昌里)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살창리는 '창(昌)을 살해한 마을'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러면 '창'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디서는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인 곳이라서 살창리라 했다 하고 어디는 창왕(昌王)을 살해한 곳이라 살창리라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창대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창리가 '창'을 죽인 곳이 맞다면, 그 주인공은 고려 창왕일 것입니다. 《광해군일기》에 나오듯 영창대군이 갇힌 곳은 동문 안입니다. 당시 동문은 성공회 성당 언덕쯤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강화산성은 원래 있던 강화성보다 훨씬 넓게 규모를 키워서 숙종 때 쌓은 것입니다.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다음 임금이 숙종입니다.

따라서, 살창리는 창왕이 갇혔다가 살해된 동네라고 해야 말이 됩니다. 강화문화원에 편찬한 《증보 강화사》(1994)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왕은 강화읍 살챙이에 위리안치하였고 그다음 해 살해되어 원사하였기 후일에 비석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나 마멸된 비석이 있어 회의를 자아낸다."

살채이에 마멸된 비석이 있다? 창왕의 비석이 있다? 예, 정말 옛 비석이 있었습니다. 1975년 7월 19일 자 <동아일보>에 '창왕 추모 유허비'로 추정되는 비석이 살채이 마을 어느 집에 누워있는 사진과 기사가 실렸습니다.

비석 높이는 185cm인데 글씨는 마멸돼 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동네 어르신이 어릴 때 비석 서 있는 걸 봤는데, 사람들이 창왕 유허비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기사에 나옵니다. 이 귀한 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칼럼

기후 위기, 플랜B는 없다



김 학 준

전) 서울신문 기자

폭염은 7월 하순에 시작되는 게 상식인데 올해는 상식적이지 않다. 6월 중순에 폭염이 발생해 서울은 낮기온이 34도 안팎이었고, 경기도 양평은 37도를 웃돌았다. 기상청은 이달 17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데 이어 19일에는 폭염 특보를 내렸다. 7~8월에는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10여년 전부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예상보다 너무 빠르다. 뭔가 기습당한 느낌이 든다. 문제는 급격한 이상 기후가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인도에서 40도가 넘는 때 이른 폭염으로 100여명이 사망하고, 브라질에선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사이클론으로 30여명이 희생됐다. 중국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자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22~24일)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적색경보는 중국의 고온 경보 4단계 중 가장 심각한 단계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이달 1~11일의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같은 기간에 비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에 따르면 6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넘게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 해괴한 것은 시베리아 기온이다. 이달 3일 시베리아 지역인 잘투로보스크 기온이 37.9도를 기록한데 이어 7일에는 38.5도(바르나울), 39.6도(바예보)까지 치솟아 '시베리아 맞아?'라는 말이 나왔다.

온도 상승은 기이한 현상들을 불러온다. 미국 네바다주 엘코시에는 '모르몬 귀뚜라미'로 불리는 곤충이 떼로 출몰해 집과 도로 등을 뒤덮으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달부터 대형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남극 빙하 규모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나사(NASA, 미국 항공우주국) 지구관측소에 따르면 지난 2월 남극 빙하는 179만㎢로, 1979년 위성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다. 미국의 빙하학자 스캠보스는 "정말 예외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며 "2023년은 미친 영역(crazy territory)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결국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현명한 인류는 해결 방법을 알고 있지만 실천은 지지부진하다. 세계 195개국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협약을 맺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과학계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극심한 홍수와 가뭄, 산불, 식량 부족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변곡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데이터 제공업체 'ESG북'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 500대 기업 중 22%만이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8%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ESG북 측은 "기업들 상당수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올바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른들이 시원찮으니 아이들이 나섰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은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세계 106개국 청소년들의 연대모임이다. 이 운동은 2018년 스웨덴 고등학생이던 툰베리(16, 여)가 어른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1인시위를 벌인 뒤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됐다. 청소년들은 집회와 시위, 국제기구, SNS 등을 통해 기후 위기에 적극 맞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을 가리켜 '기후 세대'라는 말이 생겨났다.

툰베리는 2018년 12월 폴란드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연설에서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 눈앞에서 미래를 훔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른들이 저지른 죄과 때문에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피켓을 든 현실이 딱하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미래세대가 환경재앙의 덩어기를 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법하다. 보다 먼 미래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후 파국이 오지 않을 것으로 믿고, 기후 위기와 싸움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마흐무드(15)는 "세계 정부와 지도자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나"는 언론 질문에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국제회의에서 공허한 약속을 한 다음에 늘 하던대로 되돌아가는 게 전부"라고 답했다. 뼈아픈 지적이다.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자. 남의 나라 탓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평균 기온 상승률이 세계 평균보다 거의 2배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분류한다. 최근 30년과 그 전 30년을 비교하면 열대야 일수가 196% 증가했고, 특히 8월의 열대야 발생빈도는 1.8일에서 6.2일로 크게 늘었다. 벚꽃, 진달래 등 봄꽃 개화시기가 빨라졌으며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우리나라에서 재배 중인 과일의 주산지가 대부분 북상했다.

기후 위기 해결방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뻔하다. 환경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모른다면 무지를 탓해야 하겠지만,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위기가 지닌 본질을 고려할 때 개인의 문제의식과 행동 또한 중요하다. 자신이 위기 극복의 주체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당장 저항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환경 문제에 있어 '플랜 B'는 없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인터넷에 널려 있다. 툰베리는 "우리에게는 급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기고

교육이 변해야 아이들이 산다



이 대 형
인천광역시교원단체
총연합회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 교육 현장도 빨리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21세기의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을 4C로 정의한 바 있다.

4C는 창의성creativity(창의적 혁신 creative innovation), 협업 능력collaboration,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skill, 비판적 사고 능력critical Thinking이다. 이는 주어진 문제를 타인과 소통하고 협업하며, 문제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조명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적용해 해결하는 역량을 말한다.

콘텐츠contents와 자신감confidence을 추가해 6C를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역량은 자신감이다. 지식 습득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뭔가 부족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의지력과 자신감 등이 있어야만 이 험난한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남을 수 있다.

미래의 인재는 깊이 있게 사고하며, 자신의 견해를 만들고, 남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원활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지와 끈기를 바탕으로 실패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준비가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입시 제도와 진학 지도에 얽매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것일 텐데, 변명하기엔 시간이 얼마 없다.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되는 게 아니다. 다만 출발 지점에서 있게 되는 셈이다.

교실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 발표, 동아리활동, 협력 활동, 코딩, 경제 수업 등 다방면의 수업과 실험,

실천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을 이념교육이나 디지털 장비 무상 제공 등 선심성의 정치적인 매표 행위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적절한 예산이 이런 다양한 활동에 투입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 학교와 교사들이 근시안을 버리고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교육 형태가 계속 바뀌고, 양질의 교육 자원이 온라인에 대부분 공개되는 세상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만큼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없다.

만약 특정 전문 지식을 보유했는지의 여부가 좋은 교사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면, 아이들은 그저 온라인 강의를 통해 모두 최선의 동일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교사는 교육 내용을 전달해주는 동시에 아이들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줄 알고, 아이의 장점과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며 성장을 돕는 사람이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습에 관심을 보이고, 공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돕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관심사와 수준을 파악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형 인재의 핵심 역량

구분	주요 내용
창의적 혁신 creative innovation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비판적인 사고에서 탄생한다. 창의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자동화와 해외업무 위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협업 능력 collaboration	협력은 모든 역량의 기초이자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다. 팀워크나 자기 제어 능력 등은 협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on skill	협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비판적 사고 능력 critical Thinking	특정 사실을 검증하고 자신의 견해를 갖추는 것이다. 수많은 정보가 폭발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이다.
콘텐츠 contents	지식 습득과 관련되어 있다. 학습 민첩성을 기르고, 창의적인 사고와 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익혀야 한다.
자신감 confidence	자신감은 의지와 끈기로 구성된다. 인내심과 자신감을 기르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극복하게 된다.

출처 : 로베르타 골린코프, 캐시 허시-파섹, 김선아 옮김, 《최고의 교육》, 예문아카이브, 2018.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고액 기부자 탄생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고액 기부자 김영식 대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첫 고액 기부자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제1호 고액기부자는 인천 중구에서 삼일자동차서비스(주) 업체를 운영하는 김영식 대표로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

김영식 대표는 “강화는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강화에서 맺은 인연과 추억들로 강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강화에서 제2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로 강화군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기부 답례품으로 받은 150만원 상당의 강화섬쌀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기부를 해 더 큰 나눔을 실천했다.

이태산 부군수는 “고액기부와 함께 답례품도 재기부를 하며 강화사랑을 실천해주신 김영식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전달해주신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화군에 기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을 방문하면 기부할 수 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여름 농촌봉사활동 실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여름 농촌봉사활동 실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왕근)은 지난 24일 불은면 오두리 소재 포도농가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8명의 공단 직원들은 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사회공헌활동단체(너나들이 봉사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천여 평의 포도밭에 포도에 봉지를 씌웠다.

이번 봉사활동은 무더위에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진행했다.

송왕근 이사장은 “매년 농촌사회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다짐하고, 더불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봉사에 나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공단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 모교 ‘교동중학교’에 발전기금 기부 프로게이머 초비 정지훈, 어머니 모교에 2000만원 쾌척



프로게이머 초비 정지훈

리그오브레전드(LoL) 프로게임단 Gen.G 소속 게이머 정지훈(초비)군이 어머니의 모교인 교동중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지훈군은 자신의 어머니인 전미영씨(교동중학교 29회 졸업생)의 모교 ‘교동중학교’에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쾌척한 것이다.

정지훈군은 프록게이머로 데뷔한 이후부터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피해자 지원금 1000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자신의 모교에 장학금 전달, 결손가정 아동 및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기부 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활동에 써달라며

‘세이프 더 칠드런’에 3,000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8월에는 수해지역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3500만원을 기부했다. 이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기부까지 합치면 정지훈군의 기부금은 2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머니 전미영씨에 따르면 정지훈군이 앞으로도 교동중학교에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꾸준히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년 생 프로게이머 정지훈군은 자신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멋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게 자신의 꿈이자 자신의 어머니의 꿈이라고 밝히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장마철 건강관리 요령 6가지

지난 26일 장마 시작 이후 닷새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가운데 기상청은 29일 수도권 전역과 강원, 전북, 경북 등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고, 일부지역에 최대 250mm가 더 퍼부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통 장마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만나 대립하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정체전선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정체전선은 남쪽의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며 밀고 올라가면서 장마는 끝나고 덥고 습한 여름이 찾아온다.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서쪽에서 저기압이 발생해 정체전선에 개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비구름 이동속도가 높아지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홍길동’ 장마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적도 부근의 엘니뇨로 인한 수증기가 한반도로 대량 유입되면서 국지성 폭우 등으로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29일 11시에 발표한 기상청 1개월(7월~8월 초) 평균기온 및 강수량 전망을 살펴보면 올해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이상이며, 강수량도 비슷한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이 올 확률이 40% 이상으로 예측했다.

올해 장마는 길고, 많은 강수로 예상되고 있는 최근 장마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장마철에는 다양한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며 각종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워진다. 또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면 및 신체 리듬이 깨지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여름철 불청객 장마철에 꼭 알아야 하는 수칙!

1. 손 씻기

건강관리의 첫걸음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COVID19 예방으로 올바른 손 씻기를 강조했다. 그만큼 ‘손 씻기’는 간단하지만 위생관리의 기본이자 질병예방에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세균들의 번식이 빨라지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식사 전·후, 외출 후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20~30초 이상 씻기 ▲손바닥 사이 및 손톱 사이 ▲손등과 손바닥 서로 문지르기 등 올바른 손 씻기를 꼭 지켜야 한다.

2. 음식물 관리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 세균 번식속도가 빨라지고, 이로 인해 식중독에 걸리기 쉬워진다.



식중독은 대표적으로 대장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균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로 어패류, 달걀, 우유 등에서 증식하는 세균들이다. 고기나 해산물 등은 충분히 익힌 후 섭취하고, 음식물은 5도 이하의 온도로 냉장 보관해야 한다.

식중독에 의한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면 설사가 지속되면서 탈수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지사제를 임의 복용할 경우 독소 배출을 막아 식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재가열한 음식은 가급적 버리는 것이 좋고, 행주는 매일 삶고, 도마를 완전 건조 후 사용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을 예방할 수 있다.

3. 피부질환 관리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곰팡이가 창궐해 무좀과 완선 등의 피부질환을 유발한다. 목의 주름, 엉덩이 사이, 손·발가락 사이 등 피부가 맞닿는 부위는 빗물에 섞여있는 화학물질에 의해 염증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외출 뒤 젖은 옷은 바로 벗는 것이 좋다.

특히 무좀균은 밀폐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기 때문에 외출 후 신발은 충분히 말려야 한다. 가족 중 곰팡이 피부질환자가 있으면 옷과 수건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만약 무좀균이 옮겨져 사타구니에 완선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항진균제 연고를 처방받아야 한다.

4. 환기는 필수

실내에 퍼져있는 곰팡이 포자로 인한 각종 알레르기과 천식,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실내 공기 순환을 위해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일러 가동을 통해 실내 습도를 낮추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도 좋다.

5. 신체 리듬 유지

공기 중 습도가 높아지면 땀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체온 조절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사능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야외 외출이 줄어들면서 갑갑함과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고,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멜라토닌 양이 늘어나 감정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식욕 저하 및 피로감, 수면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내 적정 온도 22~26°C를 유지하고, 낮시간에는 가급적 실내를 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실내 운동을 찾아 실천하거나 빗길 산책을 하는 것도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6. 관절 통증 완화

장마철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날씨와 관절염 환자의 통증 간 여러 연구에 따라 높은 습도로 인해 체내 수분 증발량이 줄어들고, 낮은 기압으로 관절 안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관절 붓기와 함께 통증이 생긴다는 가설이 어느정도 인정되었다.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신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통증을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따뜻한 물로 샤워, 통증 부위 온찜질, 환기 및 제습기를 통해 습도를 조절해주는 것이 장마철 쭈시는 관절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 이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관절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이다. 📌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